

인도자 지침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페이에 윌슨(Faye Wilson) 지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 2014 United Methodist Women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인도자 지침서와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내용을 더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 복사한 자료에 들어가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의 인도자 지침서>” © 2014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자료에서 복사한 것임.
모든 판권은 여성교회에 있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함.”

이 책에서 인용한 모든 성경 본문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1998년판 <성경전서 개역개정>을 사용하였음.
제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가 소유함.

copyright © 1989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아래의 자료들의 가사나 음악을 복사하거나 프로젝터로 비추어 2014년 선교 학교 모임에서
사용할 때는 다음의 저작권 인증이 첨가 되어야 함.**

Words: Thomas H. Troeger. Music: Rowland H. Prichard;
harm. From The English Hymnal. Words ©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In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Precious Lord, Take My Hand”

Words: Thomas A. Dorsey. Music: Thomas A. Dorsey. © 1938
Hill & Range Songs, Inc., Copyright renewed, assigned to
Unichappell Music, In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Lord, Listen to Your Children Praying”

Words: Ken Medema. Music: Ken Medema. © 1973 Hope
Publishing Company, Carol Stream, IL. 60188.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Sweet Hour of Prayer”

Words: William Walford. Music: William B. Bradbury.

“All I Need Is You”

Words: Dan Adler. Music: Dan Adler. © 1997 Heart of the
City Musi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CCLI #
11221925

“Tell Me the Stories of Jesus”

Words: William H. Parker. Music: Frederick A. Challinor.

“Only Trust Him”

Words: John H. Stockton. Music: John H. Stockton.

“I Want Jesus to Walk with Me”

Words: Afro-American spiritual. Music: Afro-American
spiritual; adapt. By William Farley Smith. Adapt. © 1989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In the Garden (I Come to the Garden Alone)”

Words: C. Austin Miles. Music: C. Austin Miles, adapt. By
Charles H. Webb. Adapt. © 1989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God the Spirit, Guide and Guardian”

Words: Carl P. Daw, Jr. Music: Rowland H. Prichard, harm.
From The English Hymnal. Words © 1989 Hope Publishing
Co., Carol Stream, IL. 60188.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Send Me, Lord”

Words: Trad. South African. Music: Trad. South African.
© 1984 Walton Musi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How Shall They Hear the Word of God”

Words: Michael Perry. Music: Choralbuch. Words © 1982
Hope Publishing Co. All rights reserved, Carol Stream, IL.
60188.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I Am Thine, O Lord”

Words: Fanny J. Crosby. Music: William H. Doane.

“Spirit of the Living God”

Words: Daniel Iverson. Music: Daniel Iverson. Words and
music
© 1935, renewed 1963 Birdwing Music (Admin. by EMI
Christian Music Publishing).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CCLI # 11221925.

“Change My Heart, O God”

Words: Eddie Espinosa. Music: Eddie Espinosa. © 1982
Mercy/Vineyard Publishing (Admin. by Vineyard Music USA).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CCLI# 11221925.

“A Charge to Keep I Have”

Words: Charles Wesley. Music: Lowell Mason.

“The Summons”

Words: John Bell. Music: Trad. Scottish. Words © 1987
WGRG The Iona Community (Scotland), admin. by GIA
Publ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License.net A-709087.

책의 내용

이 교재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2
첫 번째 모임: 기도하다	10
두 번째 모임: 배우다	19
세 번째 모임: 지도하다	25
네 번째 모임: 변화시키다	31
부록(Appendix A): 비밀 준수와 행동을 위한 규칙	38
거룩한 회의(Holy Conferencing)를 위한 제안들	39
부록(Appendix B): 속회 인도법	39
부록(Appendix C): 기도하는 사람들	41
부록 (Appendix D): 멘토 짝짓기 게임 준비	43
바른 길로 걷기 활동 준비.....	44
참고문헌(Bibliography)	45
저자 소개	46

이 교재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이 지침서는 인도자들에게 성인 참가자들을 기본적인 본문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재의 저자들은 인도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자료들을 동시에 이야기한 바 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들과 참가자들이 기본 본문과 이 주제를 위해 준비된 다른 자료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책들, 기도 달력, <리스판스>잡지 와 <뉴월드 아웃룩>(New World Outlook)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길 바란다. 기도하면서 읽기를 바란다. 여백에 생각을 적고 공책에 생각을 적는 등 교재에 표시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자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들을 적으면 좋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들을 적어 놓는 것도 좋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표시해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도자들이 행동을 취해야 할 관심사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동시에 책들과 잡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영적인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비종교적인 책 (그리고 영화) 중에도 자신을 새롭게 찾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다>(Eat, Pray, Love)라는 책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길버트(Elizabeth Gilbert)가 쓴 책이다.¹ 또한 <와일드>(Wild)라고 셰릴 스트레이드(Cheryl Strayed)가 쓴 책도 있다.² 작가는 (어머니의 죽음을 따라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acific Crest Trail)을 걸어가면서 겪은 일을 적고 있다. 그리고 <케이티로부터의 키스>(Kisses from Katie)라고 케이티 데이비스(Katie J. Davis)와 베스 클라크(Beth Clark)가 지은 책도 있다 (기고자들)³—자신이 우간다(Uganda)에서 선교사로 일한 이야기이다.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라.

마지막으로 인도자들의 학습준비에 기도와 배움과 지도함과 변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반드시 포함하길 바란다. 한나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위대한 응답**을 구할 것을 생각하게 한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와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리아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 당신을 인도할 손(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보여준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와 엘리사와 사렘다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일 변혁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자들이 가진 컴팩트 디스크 모음을 살펴 보고 몇 가지 노래를 들어 보도록 하라. 음악과 가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찬송가 책을 꼭 가지고 오길 바란다. 가수가 아니라도 여러 찬송가들과 노래들의 가사들을 정독해 본다. <연합감리교회 복음 성가집>(The Faith We Sing)에 나오는 “믿음과 배움의 근원을 찬양하라”는 노래가 이 교재의 초점이 되는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다:

-
1. 엘리자베스 길버트(Elizabeth Gilbert),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다>(Eat, Pray, Love) (New York: Viking Press, 2006).
 2. 셰릴 스트레이드(Cheryl Strayed), <와일드>(Wild) (New York: Alfred A. Knopf Press, 2012).
 3. 케이티 데이비스(Katie J. Davis)와 베스 클라크(Beth Clark) (기고자들), <케이티로부터의 키스: 거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Kisses from Katie: A Story of Relentless Love and Redemption) (New York: Howard Books, 2011).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고 불을 지키는 믿음과 배움의 근원을 찬양하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 지를 살펴 보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에서 놀라운 마음을 흐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게 하고 우리 기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하세.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계속 자라기를 축복한다. 웨슬리가 했던 질문,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참가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학습을 인도해야 하는 지를 분별하는 열정을 가져보라.

배움의 환경

성인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는 스테반 브룩필드(Stephen Brookfield)⁵ 는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알려질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며, 우리의 배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교재와 함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기 위한 행동의 계획을 가지며 동시에 경건의 행동과 봉사의 삶에 참여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갱신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다.

교사와 인도자로서 어른들과 일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른 학습자들은 어떤 공부 환경에 오든지 풍부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온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도전을 가지고 온다. 학습 인도자로서 모든 질문, 모든 도전, 모든 관심, 모든 꿈, 모든 좌절을 다 환영해야 될 것이다. 인도자들의 역할의 일부는 그룹 참여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적어도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들어 주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수업 시간들은 참여자들이 이미 배운 것들을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인 참가자들이 새로운 자료들을 접근하고 도전이 되고 불편한 문제들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 어른들이 새로운 자료들과 주제들을 이미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참가자들이 가능한 많은 감각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자료 사용을 확실히 하라. 우리들은 모두 다른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읽고 필기하고 할 때 가장 자료들을 잘 기억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들은 것을 새로운 학습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해야된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술가들”이라서 무엇인가를 손으로 만져야한다-진흙으로 만들든지 마커로 그리든지 붓으로 색을 칠해야 한다. 그들은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해야 한다.

어떤 학습 경험든지 극대화하려면 학습 인도자는 내용 이외의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개의 핵심 요인들은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와 레테로그래픽스(rheterographics)이다.

4. “믿음과 배움의 근거가 되는 분을 찬양하라” 토마스 트뢰거(Thomas Troeger) ©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1986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 2010년에 위촉되어 허락을 받고 사용함. Reproduced by Permission of CopyCat Music Licensing, LLC, obo Oxford University Press. All Rights Reserved.

5. 스테반 부룩필드(Stephen D. Brookfield), <어른들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기법>(Powerful Techniques for Teaching Adult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13).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

사이코 그래픽스는 성인 학습자의 감정적인 필요에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참가자들의 이름을 외우고 불러 주도록 노력한다. 질문을 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참가자들에게 “바보같은 질문”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혼돈되는 것이나 복잡한 것은 무엇든지 분명히 알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어려움 중의 하나는 때때로 참가자들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생각을 제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해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추가 정보를 고려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한 때 지구는 편평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환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가지도록 확실히 해 두는 것이다. 즉 가르침에는 반드시 묵상과 분별의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 개요에 창조적으로 침묵을 집어 넣는다—침묵은 종종 깨달음과 생각을 갖게 한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로 하기 전에 적어야 한다. 침묵과 적는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찾고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관심과 새로운 배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말라).

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혼자 말하지 않도록 하는 대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한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다. 다른 이들은 조용하고 대화에 끼어들 틈과 다른 이들의 격려를 필요로 한다. 대화를 이끄는 도움이 되는 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세분이 1분 동안만 의견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_____님, 당신이 손 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_____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 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 간단한 요약물 해주세요. 그런데 발언권을 드릴 수는 없군요.
- 그 생각을 30초 이내에 결론 내주세요.
- 이쪽 분들이 조용한데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테이블에 아이디어를 놓으실 분은 안계신가요? (어떤 내성적인 분들은 말하라고 권해야 한다.)
- _____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나 달리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 사람이 제한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발언을 자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서서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해라. “의견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전개한다. 만약 그 사람이 “아직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적으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느낌과 존중 받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이 말한 요점을 다시 이야기해준다. 만약 그 사람이 좋은 통찰력있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공헌을 인정하도록 한다.

레토로그래픽스(Rhetorographics)

사이코그래픽스가 감정을 다룬다면 레토로그래픽스는 물리적인 장소를 다룬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가르칠 경우에는 교실의 장소와 시설들의 배치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실들이 몇 가지 어려움을 제기할 때도 있다: 시끄러운 에어컨이 돌아간다는지, 식당에서 가깝다는지, 밖에서 잔디깎는 소리가 난다는지 하는 것 등이다. 가능하면 주위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없애고 배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한다. (한 번은 나는 자판기 전원을 뽑아 버렸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방 온도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에어컨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미리 알면 사람들에게 스웨터를 가져와서 춥지 않도록 준비시킨다.

의자를 U자 모양으로 배열하면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인도자와도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양 옆의 참가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다. 만약 책상이나 의자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참가자들이 방의 여러 곳에 모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모든 시청각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보기 위해서 미리 한 번 쪽 들어보는 것이 좋다. 연습을 해 보라. 만약 프로젝터나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글자 크기와 배경이 스크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갱지에 손으로 쓸 경우에는 큰 글자를 진한 색으로, 예를 들면 파랑, 초록, 갈색, 보라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빨강색과 오렌지와 노랑색은 강조할 때 쓰는 색들이기 때문에 내용의 많은 양을 쓰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업을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기법 중의 하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강의는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료 전시하는 칠판이나 벽은 보는 이들에게 보충 자료를 전시해 주고 자신들 시간에 따라서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좋다. “섞어 쓰기”를 하도록 하라—어떤 자료들은 다음 날 치우고 새로운 자료를 더하고 해서 매일 자료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도록 한다.

천장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천장에 “금방 익힐 사실들”을 매달 수 있다 (낱시 줄이나 다른 줄을 사용하면 된다). 아니면 빨래줄을 매달고 빨래 집게를 이용해서 사실들이나 개념들을 전시하면 된다. 자료 테이블을 만들어서 책과 잡지에 실린 글들, 책자 인용문, 그리고 가지고 갈 자료들을 놓으면 참가자들 중에 훑어 보기도 하고 잡지들을 읽으면서 2분 동안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나 생각을 인덱스 카드나 스티키 노트나 그림이나 잡지에서 오려낸 글 등을 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을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수업 중에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도록 과제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보라.

모임의 요소들

매 번 모임은 두 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요소들마다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만 모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

러나 여러분이 각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할 지 먼저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배정은 저자들의 제안이다.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운영하면서 변혁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습 환경을 만들도록 하라.

- 개회 예배
- 성도의 교제
- 본문과 상황
- 속회
- 반응과 묵상
- 행동에로의 초대
- 폐회 예배
- 과제

자료들과 준비물들

여러가지 준비물들이 (지역이든 연회든) 선교학교 모임 인도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준비물들을 미리 챙기면 교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신축성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성경 (우리 교재의 본문으로는 개역 개정이 사용되지만 다른 역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찬송가 (참고자료로 여러 권)
- 기도 달력
- 여선교회 프로그램 북
- 페인터들이 쓰는 청색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보다 이것이 좋다.)
- 투명한 스카치 테이프
- 공작용 종이 (다양한 색깔과 여러가지 크기)
- 마커들 (일부는 드라이 마커야 함.)
- 드라이 마커 지우개
- 풀 (글루 스틱)
- 뽀짝이 글루 스틱
- 가위
- 털실, 노끈, 빨래줄
- 압정
- 스테이플러

처음 모임 인도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일곱 가지 조언

선교학교 모임의 인도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아들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나는 1982년에 처음 선교학교를 인도하였다. 그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동안 나는 다른 인도자들에게 많이 배웠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도 많이 배웠다. 내가 지난 해 다른 인도자들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대화에 근거해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 이외에).

모임 인도자가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교재(와 다른 자료들)를 깊이 파악하도록 돕는 동시에 다른 감정적 및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선교학교의 세미나와 강의를 이끌기 위한 일곱개의 조언이 있다:

1. **참가자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참가자 명단을 미리 받으면 이메일을 보내어 수업을 위한 준비로 무엇인가를 읽거나 연구할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보를 수업시간에 일어난 것과 연결해 보라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면). 종종 이렇게 물어 보아라: “다음 모임 때 이 정보를 다른 참가자들과 기꺼이 나누시겠습니까?” 성인 학습과 변혁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선생이며 모든 사람이 수업에 무엇인가를 공헌한다는 것이다.
2. **자기 자신을 위한 상비품들을 준비하라:** 휴지 (또는 땀을 닦기 위한 손수건), 기침 방지용 사탕이나 민트, 물병, 여분의 펜 등...
3.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도착한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 아니면 모임 전에 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 기능할 것인지를 새로운 눈으로 살펴 본다. 때로는 인도자가 벽에 붙여 놓았던 것을 다시 끌어 내려야 할 경우가 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얇은 판으로 보호막을 한 포스터들을 벽에 걸어 놓았었는데... 그것들이 자고 나니까 다 떨어졌다. 아침에 수업시간에 일찍 왔기 때문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포스터들을 -약간의 테이프를 더 사용하면서- 다시 다 붙여 놓을 수 있었다.
4. **다양하게 하라.** 다양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참가자들이 그룹으로 함께 작업하게 한다. 또한 자기 지정된 그룹 이외의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도록 추가 작업을 준다. 다양한 색의 인덱스 카드나 스티키 노트는 그룹 과제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 교재를 가지고는 노란색의 인덱스 카드는 지정해 준 웨슬리 “속회” 모임 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초록색 스티키 노트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 같이 한 그룹을 가르칠 수 있다.
5. **가져온 자료들을 언급한다.**—심지어는 벽에 있는 포스터 까지도. 사실, 적어도 한 과제는 학생들이 벽에 있는 자료들 가운데서 답을 찾아서 벽에다 무엇을 붙이는 일을 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6. **활기찬 수업이 되도록 한다.** 몸동작을 바꾸면서 가르친다. 앉았다가 섰다가, 교실 안에서 이쪽 저쪽 위치를 바꾸면서 학습을 인도한다. 참가자들의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몸동작에 관심을 가져라. 존 알마로드(John Almarode)가⁶ “충전지”라고 부른 것을 사용해 보라. 그는 사람들이 몸을 사용하면 도파민의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기억력, 주의 집중,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다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한다 (두 시간 진행 수업이라도). 만약 지도자가 점심 이후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누군가는 졸 것이다. 수업 시작 후 30-40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라: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어 다른 사람들과 한 번에 한 사람씩 세 명과 당신이 이 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자기 대화에서 중요한 것 한가지씩을 전체 그룹에 보고하게 한다. 다른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안을 살펴 보라.

6. 존 알마로드(John Almarode), “학생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기억하게 만드는 여섯 가지 ‘충전지’들.” <http://developmental-resources.wordpress.com/2013/04/15/almarode-six-energizers-to-increase-student-focus-and-retention/>.

눈싸움과 다른 충전지들

존 알마로드(John Almarode)가 한 제안 중에는 눈 싸움(snowball fight)이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이에다 질문이나 자기 생각을 적게 한 다음 눈덩이처럼 뭉치게 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뭉쳐진 종이를 집어들면 자원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 질문이나 생각을 큰 소리로 읽게 한 다음에 그룹으로 하여금 거기에 답하게 한다.

또 다른 충전지는 빠르게 말하기(speed talk)다. 두 개의 원을 만든다—하나는 안쪽에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그리고 참가자들을 서로 마주 대하고 서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할 기회를 준 다음에는 30초 이내로 자기 관심사를 토론하게 한다. 예를 들면 한 질문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누가 당신을 가장 잘 지도하였습니까—왜지요?” 그리고 나서는 한 서클은 가만히 있고 다른 서클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두 걸음을 움직이게 한 후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들에게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자기자리로 돌아온 다음에는 전체 그룹에 자기 토론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충전지의 다른 예들: 동작(Movement) (타이치[tai chi], 요가[yoga], 맨손체조).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이나 의견에 가장 가까운 쪽의 방의 위치에 가서 서게 하는 동의/반대(agree/disagree) 활동도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휴식을 할 때는 음악을 틀어주고 서넛씩 짝을 지어 한 노래나 찬송가 중에서 이 공부에서 배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곡을 고르게 (그리고 부르게) 한다. 예를 들면, “기도하다”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한 팀이 “주기도문”을 부를 수 있고 다른 팀은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7. **수업 시간을 엄수한다.** 참가자들이 옆길로 새는 수가 있다. 토론은 좋다; 논쟁이나 적대감은 변혁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더하고 싶은 다른 아이디어나 관심사가 있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계를 가르키면서 톡톡 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단서를 주라. 또한 길게 혼자 말하는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 (어깨나 손 등) 그 사람을 쳐다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제 30초 안에 말씀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참가자들이 지도자로 부터, 동시에 서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라.

개관

이 도표는 네 개의 모임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매 모임을 인도자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두 시간 보다 짧으면 활동을 하나나 둘 줄일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항목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속회활동을 본문과 상황 이전에 할 수 있다.

활동/모임	첫 번 모임 (기도하다)	둘째 모임 (배우다)	셋째 모임 (지도하다)	넷째 모임 (변화시키다)
개회예배	“주여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믿음과 배움의 근원을 찬양하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바른 길로 걷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도의 교제	자 오세요! 시작합니다.	자 오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손 그리기: 자 오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자 오세요! “나는 교회 갑니다”
본문과 상황	제 1 장 열 가지 주요 배운점; 그룹학습 시간	제 2 장 열 가지 주요 배운 점; 그룹 학습 시간	제 3 장 열 가지 주요 배운 점; 그룹 학습 시간	제 4 장 열 가지 주요 배운 점; 그룹 학습 시간
속회	당신은 이번 주 어떻게 기도했나요?	당신은 이번 주 어떻게 공부했나요?	당신의 멘토는 누구?	하나님 자랑: 변화예의 욕구
반응과 묵상	일지를 만들라; 거기 쓰라	예수님 이야기 중 좋은 것; 쓰기	멘토 맞추기; 쓰기	
행동예로의 초대	바른 길로 걷기; 기도 전달하기	바른 길로 걷기; 벽에 붙이기; 사역 계획	신앙 여정 도표 만들기; 멘토 맞추기 게임	공동체 관심팔기; 행동 계획 만들기
폐회 예배	통성기도,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렉시오 디비나 성경 묵상 기도법	멘토 이름 말하기, 멘토가 필요한 분들	헌신 예배
과제	2 장 일기; 예배 순서 담당자 정하기; 자기 교회에 속회를 운영 하는 분 찾기	3장 읽고 묵상; 나의 멘토 10분 이름 적 기; 내 인생에 중요 한 10가지 영적 사 건들	4장 읽기	

*이 도표는 저자이자 어린이 선교 학교 지도자인 수 레이몬드(Sue Raymond)가 만든 것으로 허락을 받아 사용함.

첫 번째 모임: 기도하다

암송할 인용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2-3에 근거함

이 모임의 목표

- 하나의 기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기도에 관한 개요를 그린다.
-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서 그것이 의무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 특권임을 확인한다.
-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수단으로 요한 웨슬리의 속회 모델을 사용한다

준비물

- 이름표
- 인덱스 카드 (5가지 다른 색— 파랑, 초록, 노랑, 보라, 그리고 분홍이 전형적인 색상임)
- 스틱키 노트 (다섯 내지 여섯 개의 다른 색을 찾을 것, 즉 짙은 분홍, 연두색, 감청색)
- 페인트 칠하는 분들이 쓰는 테이프 (파란색)
- 공작용 종이
- 흰색 줄이 있는 종이, 또는 작은 공책
- 색 마커들
- 가위
- 스테이플러
- 풀
- 개인들의 목상집을 장식하기 위해 공작용 재료들

준비

1. **목상을 위한 벽을 만든다.** 한 벽을 지정하거나 방의 한 공간을 지정해서 수업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눌 수 있게 한다.
2. **환영과 평화의 글을 쓴다.** 1 쪽 서론에 있는 글을 공작용 종이에 써서 방 여기 저기에 종이에 붙여 놓는다.
3. **암송용 인용구를 전시해 놓는다.** 인용구의 말들을 쓰거나 타이프로 개별적으로 종이에 쳐서 그것들을 색색 공작용 종이에 풀로 붙인다. (지속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 종이를 얇은 보호막으로 막아준다.) 만약 가능하다면 단어들을 방의 한 중앙이나 교실 여러 곳에 아무렇게나 붙여 놓는다. 그리고는 파란색 테이프를 사용해서 그 단어 주위에 정사각형을 만든다(부록 Appendix D를 보면 정사각형 안에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하는 지 시각적인 안내가 나온다.)

4. **테이블에 참가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목상 일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들을 준비해 둔다.** 줄이 있는 종이를 한 묶음 쌓아 놓고, 표지를 만들 공작용 종이와 장식을 위한 여러 가지 공작 용품들을 둔다. 또한 가위와 색칠용 마커, 풀, 그리고 스테이플러를 놓는다. 아니면 단순히 작은 공책들과 색칠용 마커들을 놓아서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한다.
5.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준비를 한다.**
6. **부록Appendix B(속회 인도)의 복사본을 5부 만든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로 선택되었거나 임명된 사람들에게 한 부씩 준다.
7. **과제를 나누어 준다.** 다섯 개의 다른 색의 인덱스 카드를 가지고 한 참가자의 테이블 혹은 의자마다 하나씩 놓는다. (그렇게 해서 참가자들을 웨슬리의 속회에 배정한다.) 또한 각 참가자에게 스티키 노트를 하나씩 주어서 (4개 내지 5개의 다른 색으로 준비해서 모임 중에 “본문과 상황”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8. **웨슬리의 속회에 관한정보를 검토한다.**

웨슬리 속회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고 싶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구역회, 밴드, 속회.

이 구조에서 처음 것, **구역회**는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가장 닮았다. 이 기본적인 조직상의 단위에서 구역회 구성원들은 매주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서로를 돕고 기도하기 위해 만났다.

둘째 구조는 **밴드**이다. 이것은 성별, 나이, 결혼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 소그룹들이다. 이러한 그룹에서의 토론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기독교적인 삶을 유지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구조는 **속회**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10-12명으로 이루어진 서로 격려하는 모임으로 참가자 자신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 이 소그룹에서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 개의 질문이 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악을 금하였습니까?

당신은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였습니까?

당신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자기들의 경건의 활동들과 자비의 활동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힘을 얻었다. 이런 일은 동시에 이런 삶의 방식이 자기들을 위한 삶의 방식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게도 헌신을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모임이 사람들에게 “완전”을 향해 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

김신호는 요한 웨슬리가 모임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돕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과 거룩함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구원, 친교, 제자도가 강조되었다. 필립 하르트(Philip Hardt)는 이러한 속회 구조가 “감리교의 영혼”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힘을 얻으며 지도력을 얻고 새로운 교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⁷

수업 계획

개회 예배 (5 분)

찬송:

“예수여 이 손을 꼭잡고 가소서,”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309장. (이 노래 가사나 곡을 사용할 때 포함되야 하는 저작권 문구에 대해서는 2쪽을 참조.)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수있다)

성경: (자원하는 분)

사무엘상 1:1-15

기도: (한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성경 속에 있는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자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들 자신을 당신께 드리오니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 “나는 너의 사랑, 너의 하나님, 너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당신에게 둡니다. 아멘.

교독문

낭독자 (자원하는 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엽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7. 린다 블룸(Linda Bloom), “감리교회의 역사의 일부인 속회는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04, <http://archives.umc.org/interior.asp?ptid=2&mid=5937>.

다함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낭독자: 당신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14을 볼 것.)

다함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낭독자: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와 안내를 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들은 당신이 우리를 불러 하게 하신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다함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연합감리교회 복음 성가집 (The Faith We Sing)> 2193장. (이 노래 가사나 곡을 사용할 때 포함되야 하는 저작권 문구에 대해서는 2쪽을 참조.)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수 있다)

성도의 교제 (10 분)

자 오세요!

학급을 8-10명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이면 자기 소속 교회의 가나나 순으로 줄을 서게 한다 (가나안 교회가 처음이면 한사랑교회가 마지막이 된다). 그리고 그룹을 원형으로 앉거나 서게 한다. 몇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들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

시작하기

참가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첫 번 모임의 목표를 소개해준다. 즉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인 세상과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다.** 또한 참가자 지침서에 있는 모임의 목적들을 지적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몇 분들에게 왜 자신들이 이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말하도록 한다.

비밀보장과 행동에 관한 준수사항(이것도 참가자 지침서에 있다)을 한 번 살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라. (대안으로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행동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의 영적 성장 교재로부터 많은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활동들이나 행동들을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본문의 의미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라.

학급에서는 다양한 그룹 활동을 할 것과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 한 번은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라. 각 참가자는 수업 전체를 통해서 두 개의 그룹에 배정될 것이다: 본문과 상황 토론 그룹과 “속회,” 즉 웨슬리의 속회 모델을 참가자들이 경험하도록 돕는 모임이다. 스티키 노트 색을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토론/공부 그룹에 배정하고 인덱스 카드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회로 나눈다.

본문과 상황 (30 분)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스티키 노트 색에 따라서 **학습 그룹으로** 모이게 한다. 그들은 제 1 장을 읽는다. 개별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는 함께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한다:

- 본문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 열 가지를 적는다
- 더 알고 싶은 개념 두 가지를 적는다
- 자기들 삶 속에서 생각나게하는 내용 다섯 가지를 나눈다

예를 들면, 한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던 부부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직 여성국 회장이었던 김경자가 했던 식의 기도습관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와 묵상을 위한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룹들에게 그들이 찾은 중요한 발견들과 자기들이 더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전체 그룹에 보고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라. 그룹의 생각을 기록할 사람을 정하게한다. 그룹에게 지도력을 나누는 모델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매 번 다른 사람들이 그룹 토론을 인도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그룹에게 자신들이 읽을 시간과 자기들의 응답을 적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알려 준다. 그리고 보고할 시간이 되어 전체 그룹으로 다시 모이게 하기 전에 “4분 남았습니다”하는 안내를 해 준다.

전체 모임 시간에, 모든 그룹들이 교재를 읽고 발견한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 다른 모임 참가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그룹들에게 자신들이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분야들을 적게 하고 모임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질문을 대답할 방법을 찾도록 한다.)

속회 (25 분)

속회 조직

웨슬리 속회 모델에 대한 개관을 해 준다. 개관을 이야기하는 동안 참가자 지침서에 있는 정보도 참조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속회는 비밀보장과 행동의 언약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속회의 특징이자 장점인 “서로를 사랑안에서 돌보는” 기회인데 속회 안에서 이런 나눔에는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룹들을 인덱스 카드 색으로 조직하도록 부탁한다. 자기 그룹의 이름을 정하게 하고 네 번의 모임 동안 인도자로 섬길 사람을 뽑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에게 참가자 지침서에 나와 있는 속회 경험을 참조하게 한다. 속회 인도자는 인도자가 지명해도 좋고 각 그룹에서 뽑도록 해도 좋다. 각 속회의 시간을 지켜 보면서 끝날 때가 되기 전에 미리 몇 분 남았는 지를 알려 준다.

속회 경험 (그룹)

1. 속회 이름을 정한다. (속회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정하라고 한다.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이름, 예를 들면 한나, 도르가, 룻, 나오미 등 아니면 감리교회여성교회의 중요 인물들 예를 들면 수잔나 웨슬리, 사라 크로스비, 바바라 헵, 소저너 트루스, 루시 라이더 마이어, 피베 파머, 패니 크로스비, 이사벨라 토번, 클라라 스웨인, 앤나 하워드 쇼, 프랜시스 윌랄, 켈마 스트븐슨, 마이 그레이, 데레사 후버 등을 들 수 있다. Susana Wesley, Sarah Crosby, Barbara Heck, Sojourner Truth, Lucy Rider Meyer, Phoebe Palmer, Fanny Crosby, Isabella Thoburn, Clara Swain, Anna Howard Shaw, Frances Willard, Thelma Stevenson, Mai Gray, Theresa Hoover.)
2. 속회 인도자와 속장을 정한다 (인도자가 임명할 수 있다) .
3. 자신을 소개한다 (이름, 소속 연회 및 교회,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사 한 가지).
4. 간단하게 다음 질문들에 대답한다 (1-2분 정도 대답한다):
 - 현재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이번 주 당신은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5. 당신이 지금 들은 기도 제목을 적는다.
6.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로 마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답과 묵상 (15 분)

개인 묵상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참가자들이 새로운 통찰을 얻고 배움을 소화하고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 그룹 사람들에게 필립 하르트(Philip F. Hardt)가 뉴욕에 있는 존 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John Street United Methodist Church)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속회 개별 멤버들의 원본 일지들을 발견했고 뉴욕 공공 도서관의 희귀본 소장실에서 몇 개의 속회 명단도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⁸

8. 린다 블룸(Linda Bloom), “감리교 역사의 일부인 속회가 오늘날도 적용된다,”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04, <http://archives.umc.org/interior.asp?ptid=2&mid=5937>.

참가자들을 학습 재료가 있는 테이블로 가게 해서 이 네 번의 모임 동안에 사용할 개인 일지를 만들 것을 권한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공책에 쓸 수도 있다. 일지나 일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속회 구성원 이름들, 기도 제목들, 중요한 성경 구절들, 그들에게 중요했던 혹은 그들이 읽고 싶었던 책 이름들, 속회에서 알게된 정보들, 개인적인 도전들, 성장의 영역들을 적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원하면 아주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림이나 잡지 사진 혹은 친구나 가족 사진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 일지에 적으라고 부탁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거기에 적을 시간을 충분히 남겨 놓도록 한다. 오늘의 참가자들의 초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이다-우리가 기도를 받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둘 다의 경우에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지를 만드는 단계에서 적어 넣는 단계로 옮겨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조용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격려하라.

행동여로의 부르심으로 옮겨가는 동안 매 번 모임에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일지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다른 시간에도 그 일지에 써도 된다고 말하라.

행동여로의 부르심 (20 분)

바른 길을 걷기(STAY ON TRACK)⁹

참가자들의 초점을 암송할 인용구 (네 번 모임 때마다 같은 것이 될 것임)를 배우는데 맞춘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용구를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룹에서는 **바른 길을 걷기(Stay on Track)**라는 게임을 한다. 사람들에게 바닥에 흩어져 있는 인용구의 단어들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부록 Appendix D를 참조.) 네 명이 한 팀이 되게 해서 돌아가면서 각 단어에 올라 서도록 한다.

여기에는 단 두 가지의 규칙만 있다:

1. 한 번에 단 한 사람의 발, 발가락, 또는 지팡이가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단어를 만지기 위해서 지팡이나 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어떤 사람도 계속되는 단어에 올라설 수 없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과 “계속하고”에 올라설 수 없다. 그 구절의 다음 단어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올라서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큰 소리로 단어를 말해 줄 수 있다. 목표는 돌아가면서 그 단어들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다.

9. 바른 길을 걷기(Stay on Track) 활동은 크리스찬 무어(Christian Moore)가 쓴 <한 번 해보자>(WhyTry) www.whytry.org. 에 나온 것을 허락을 받아 사용함.

각 팀에 단어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준다. 각 팀이 인용구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재서 기록한다.

기도 나누기

참가자들에게 자리에 돌아가 앉게 한다. 하얀 종이를 꺼내서 기도 제목을 쓰게 한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다.) 그런다음 그 종이를 구겨서 서로 주거나 받거나 60초 동안 던지게 한다. 시간이 되면 각자에게 그 종이를 주어서 펼치고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게 한다.

먼저 읽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말하게 한 후 기도 제목을 읽게 한다: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는 _____ (사람 혹은 관심사)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24시간 동안 이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다고 헌신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일지에 적어 놓으라고 한다.

폐회 예배 (10 분)

찬양: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330장; “주여,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연합감리교회 복음 성가>(The Faith We Sing) 2193장; 또는 “나 주님만 원하네,” <복음성가>2080 장. **(2쪽에 있는 저작권 표시는 이 노래들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함.)**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 모델(19쪽을 보라)처럼 의자나 바닥에 (가능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세처럼 무릎을 꿇는다. 만약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자리에 그냥 앉은 채로 주먹으로 책상이나 테이블을 친다.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려도 좋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도

주여 - 주여 - 주여!

[바닥이나 테이블을 세 번 두드리고는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든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들으소서.

주여 - 주여 - 주여!

[바닥이나 테이블을 세 번 두드리고는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든다]

필요를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목소리를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당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당신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깊게 하소서.

주여-주여-주여

[바닥이나 테이블을 세 번 치고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마치는 순서: 기도 달력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읽거나 선교 프로젝트를 읽는다.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러한 헌신의 기도를 같이 드린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세상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과제 (5 분)

나머지 세 모임을 위해 예배를 인도할 자원자를 모집한다.

그룹에게 제 2 장을 읽고 자신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 10 가지를 적게 한다. 자기들 일지에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어 보게 하라 (예를 들면 언제 기도를 받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하는 것 등)

만약 자기 교회가 속회 모임 같은 조직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한다. 두 번째 모임에 나올 때 그룹들과 함께 속회 모임의 가치에 대해서 나눌 준비를 해 가지고 오게 한다.

두 번째 모임: 배우다

암송할 인용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2-3에 근거함

이 모임의 목표

- 우리들을 연구와 행동으로 다시 헌신케 하는 것
- 초기 감리교회나 제자 양육의 시기에 복음 전파에 수반된 집중 배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
- 웨슬리 속회 모델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언약을 유지하는 것

필요한 자료들

- 기도하는사람들 짝짓기 활동 (참가자 지침서 혹은 사본)
- 스티키 노트 (서너 사람에게 한 묶음씩)
- 바른 길을 걷기 (암송 인용구 단어들)
- 종이(적어도 한 명당 한 장)

준비

짝짓기 활동(기도하는 사람들)은 참가자 지침서에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몇 장 더 여분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수업 계획

개회 예배

찬송:

“믿음과 배움의 근원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복음성가집>, 2004장;

또는 “예수님 이야기 내게 들려주소”,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177장

(2쪽에 있는 저작권 내용을 이 노래들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다른 찬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경 봉독: (자원하는 분)

시편 119:10-16

기도: (자원하는 분)

교독문

낭독자(자원하는 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어두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다함께: 저는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주님.

낭독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나와 함께 모든 골짜기를 걸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저를 지켜 줍니다.

다함께: 저는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주님.

낭독자: 마리아처럼 당신의 발아래 앉아 있는 저를 보십시오, 브리사가, 로이스, 유니스처럼, 주님, 당신의 말씀을 알기를 열망하는 저를 보십시오

다함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당신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웃들을 더 잘 섬기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 (15 분)

자 오세요!

그룹을 8 내지 10명의 사람들로 나눈다. 그 참가자들을 방 한 쪽에 서게 한다. 그들에게 자기들의 형제자매 숫자에 따라서 (살아 있든지 돌아가셨든지) 순서대로 서게 한다. 이 그룹들 가운데서 두 세 명으로 하여금 자기들 가족에 관

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가장 많은 숫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을 공개한다: 혹시 10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있는 분이 있는가 물어본다 (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는 한 명 혹은 없다는 분까지 계속 숫자를 내려가면서 물어본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

“배우다”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관한 간략한 복습을 할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에게 참가자 지침서 (혹은 나누어준 종이)에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혼자서 2분 동안 하도록 한 다음 파트너를 찾아서 또 다시 1분 정도 정답을 찾기 위해 같이 활동 하도록 한다. 정답을 말해 주고 관련 성경 구절을 알려준다 (부록 Appendix C를 참조).

본문과 상황 (20 분)

참가자들에게 스티키 노트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 공부 그룹에 모이게 한다. 두 번째 모임의 목표, 즉 초기 감리교회나 제자 양육의 시기에 복음 전파에 수반된 집중 배움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을 연구와 행동으로 다시 헌신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배움에 관한 장을 소개한다. 아니면 참가자용 지침서에 있는 이 모임의 목적들을 읽게 할 수도 있다.

<메시지>를 쓴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글을 인용한다: “주석[진지한 성경 연구]없이 영성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이 되기 쉽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본문 중). 참가자들에게 간략하게 자신의 영적인 배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성경 공부나 묵상 자료들 혹은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또는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그 다음 각 공부 그룹에게 2장의 각 부분을 배정해서 살펴보고 검토하게 한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10가지, 자기들이 더 알고 싶은 개념 2가지, 그리고 자기들 삶 속에서 기억되는 일 5 가지를 쓰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배움의 능력”과 같은 일을 자기들 교회에서 제자 성경 공부 할 때나 아니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복을 사용할 때 벌어진 일과 비교할 수 있다.

전체 모임 시간에, 각 그룹이 돌아가면서 교재를 읽을 때 배운 중요한 점들을 보고하게 한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그 후에 자기들이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게 한다.

속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음의 질문들에 간략하게 (1분간) 대답하게 한다:

1.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2. 당신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3. 어떤 좋은 말씀이 당신의 신앙의 여정을 지탱시켜 주었습니까?
4. 어떤 책이나 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도왔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고 모임을 마무리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대안활동: 만약에 자신의 교회에서 속회 제도를 사용하는 분이 있거나 그런 속회 제도에 속한 분들이 있으면 그 분에게 속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2-3분간 이야기하게 한다.

응답과 묵상

준비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좋아한다.) 인도자 자신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라.

그 후에 참가자들에게 이 모임에서 배우거나 읽은 것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일지에 쓰게 (혹은 그림을 그리게)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묵상하거나 자기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선생님들에 관하여 묵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기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들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설교나 책들을 묵상 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교사들의 목록을 적을 수도 있다.

행동으로의 초대

바른 길을 걷기:

계속 성경 구절을 외운다. 다섯 명으로 된 두 팀을 모아서 기억인용 게임을 한다. 각 팀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준다. 시간을 쟀다. 그들이 인용구절에 있는 각 단어를 만지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 본다. 그 구절을 외우는 일을 같이 하고 같이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쓴 것을 벽에 붙여 놓기:

사람들에게 스티키 노트를 가지고 묵상벽에 붙일 본문이나 모임에서 벽에 붙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적거나 그려서 붙여 놓게 한다. 그것은 새로 배운 내용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돕는 노래일 수도 있다.

참가자들의 계획 :

모든 참가자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준다. 참가자들은 한쪽에는 이름을 적고 뒤집어서 뒷 쪽에는 자신의 삶과 신앙 생활에서 관심있는 영역을 종이 꼭대기에 적는다.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는 1분이나 2분 간격을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한 다음, 한 번에 한 사람씩 각 사람의 관심 영역을 읽고 자기 생각을 종이에

추가하게 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슨 책이나 웹페이지를 읽을 것인지, 무슨 노래를 들을 것인지, 누구와 이야기 할 것인지 (아래 “예”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들을 모으고 행동 방향을 정해서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뒷받침 하자는 것이다.

예: 나는 법적 입양 제도에서 자라게 된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 말에 더해서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쓴다: 마이클 오어(Michael Oher)의 책, <나는 역경을 극복했다>(I Beat the Odds)를 읽어 보라.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쓴다: 지역 법정 양육 단체에 전화해서 돕는 일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쓴다: 당신은 법정 양육 제도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을 위한 오픈 테이블(Open Table) 운동에 대해서 들어 보았는가?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쓴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폐회 예배

찬송

“주님만 의지하라,”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37장. (2쪽에 나오는 저작권 관련 문구는 이 곡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다른 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도

기도 달력에 적합한 사람들과 기관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위한 조용한 기도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이 요약문을 읽는다 (자원하는 분):

자매, 형제 여러분, 진지한 공부와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소동 한 가운데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성경 공부는 언제나 실질적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나 우리들 속에 대화를 향해 열린 마음과 행동을 하겠다는 개방성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라:

모임 인도자가 다음의 초청과 지침을 큰 소리로 읽어준다:

저희들의 모임이 끝나가면서 **렉시오 디비나**¹⁰ 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웁시다.”
“조용한 마음중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누가복음 19:1-6에 나오는 예수님을 배워봅시다. 제가 본문을 세 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주의를 끄는 단어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는다. 2분 동안 온전한 침묵을 하게 한 후 참가자들에게 그 단어를 자신의 일지에 기록하게 한다).

10. 베키 돗슨 라우터(Becky Dodson Louter)와 팻회르트(Pat Hoerth) 지음, 참가자 지침서 <소명: 예배자로 살기, 정의롭게 행하기>(The Call: Living Sacramentally, Walking Justly)(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3).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다. 참가자들에게 2분을 온전히 침묵하게 한 후에 자신들의 일지에 적게 한다.) 세 번째 들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하라는 초청을 듣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 참가자들에게 2 분을 온전히 침묵하게 한 후에 일지에 기록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쓰기를 마친 후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음의 선언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매님 (또는 형제님), 나는 서약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더 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리스판스> 잡지와 다른 선교 자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과제 (5분)

제 3 장을 읽거나 재 검토한다.

자기에게 의미있는 것 10 가지를 쓰게한다.

참가자들을 지도한 10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게한다.

각자 삶 속에서 중요한 영적 사건 10 가지를 적어 보게한다.

진도를 나가는 동안 영적 일지를 계속 쓰도록 권유한다.

세 번째 모임: 지도하다

암송할 인용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2-3에 근거함

이 모임의 목표

- 우리들 인생에서 안내해 주었던 손길들과 마음들을 기억하기.
- 성경에 나오는 핵심 지도법의 요소를 논의하기.
- 다른 사람들, 비록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후배들이라도, 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필요한 자료들

- 공작용 종이
- 마커
- 반짝이 풀들
- 빨래줄, 노끈, 튼튼한 줄
- 옷핀
- 가위
- 페인터
- 스카프 (눈가리개)

준비

1.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위한 준비.** (허용이 되면) 교실에 빨래줄을 건다; 각 참가자들에게 옷핀을 준다. 각 사람의 자리에 공작용 종이를 두 장씩 놓는다. 바구니 혹은 작은 비닐 봉지에 마커를 넣어서 참가자들이 사용하게 한다. 몇 개의 가위를 비치해 둔다.
2. **멘토 짝짓기 게임 준비.** 공작용 종이 (아니면 4 x 6 인덱스 카드)를 가지고 멘토와 제자를 짝지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든다. 이 이름들을 개별적으로 카드나 종이 반 장에 적는다: 빌립/내시; 엘리야/엘리사; 바나바/바울; 모세/여호수아; 엘리사벳/마리아; 케니(Kenny)/잭(Jack); 에타 바톤(Etta Barton)/권진숙; 사라 엔날리스(Sarah Ennalis)/헨리 뵘(Henry Boehm); 마야 안젤루(Maya Angelou)/오프라(Oprah); 나오미/룻; 모르드개/에스더. 부록(Appendix D)에 있는 지시를 따라서 벽 위에 멘토 짝짓기 게임을 위한 칠판을 만든다. 큰 종이 위에 멘토/제자 짝을 적어 놓고 그 옆에 멘토 짝 짓기 게임을 붙여 놓는다.

수업 계획

개회 예배 (5분)

찬송

“나와함께 걸으소서”,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104장; 또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96장. (2쪽에 있는 저작권 문구를 이 찬송가들의 가사나 곡을 사용 할 때 반드시 집어 넣을 것) (다른 찬송들로 대체할 수 있다)

성경 (자원하는 분) 사도행전 8:26-31

기도 (자원하는 분)

교독문

낭독자 (자원하는 분): 만약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다함께: 주님, 우리는 주님이 “곁에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낭독자: 주님은 선생들과 설교자들과 격려하는 이들과 양육하는 이들과 자극하는 이들과 인도해 주는 이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함께: 주님, 우리는 주님이 “곁에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낭독자: 내 눈을 열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와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하소서. 저에게 “인도하는 손”과 격려하는 지도자와 지혜와 소망의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다함께: 주님, 우리들이 기도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였사오나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들을 인도하소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멘.

바른 길을 걷기 (10 분)

이 성경 암송 활동은 보통 모임 뒷 부분에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그룹에게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을 돕는 동시에 오늘의 주제인 멘토링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바른 길을 걷기* 게임을 하도록 한다. 단지 이번에는 한 사람 (제자)이 단어들 위에 서는데 눈을 가린다. 두 번째 사람은 멘토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이드는 반드시 사각형 밖에 서서 안내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왼쪽으로 두 발, 앞으로 네 발 하는 식이다.) 세 번째 사람은 이 과정에 참견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애쓰는 방해꾼 역할을 한다.

나머지 그룹은 조용한 구경꾼으로 남아 있다. 몇 팀이 이 활동을 한 후에 이 경험을 토론허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성도의 교제 (15 분)

손 모습 그리기:

공작용 종이 한 장을 이용해서 큰 손 모양을 그린다. 그 손을 오려 낸다. 한쪽에는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멘토로서 섬겨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반대쪽에는 자기에게 멘토나 인도자로 “임명되었던” 분들의 이름을 적는다.

자 오세요!

참가자들을 8 명에서 10 명의 그룹으로 나눈다. 자기들의 “손모양”을 가지고 오게 한다. 방 한쪽에 서서 선교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마일 수에 따라서 한 줄로 서게 한다 (제일 가까운 거리부터 먼거리 순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줄에서 있으면서 파트너를 찾아 같이 앉아서 참가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멘토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동시에 자기들이 지도하는 특권을 누렸던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한다. 이 모임 마지막에 손모양들을 빨래줄에 걸어서 우리의 믿음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줄을 만든다.

본문과 상황 (25 분)

멘토링에 관한 이 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목표를 소개한다. **성서적 및 오늘날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멘토링의 경험을 깊이 탐구하면서 멘토링이 성공적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멘토링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다.** 동시에 참가자 지침서에 인쇄되어 있는 이 과의 목표를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잭(Jack, 저자 중의 한 사람-역주)의 엄마처럼 “검도회”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는 지 물어 본다. 몇 사람이 대답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성경에 나오는 멘토들을 생각할 때 누가 마음 속에 떠오르는지 물어본다. 이 수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봉사와 다른 사람들과의 일 대 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해 준다.

참가자들이 **공부그룹**으로 모여서 3 장을 재 검토하게 한다. 지난 번 처럼 자기 마음에 특히 남는 10가지 내용, 더 알고 싶은 2 가지 개념, 자기 삶 속에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5가지 일들을 적게 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들은 멘토링을 위한 장소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멘토링의 장소로 사용되는 공동체의 단체들을 찾아보게한다(예를 들면 소년 소녀 클럽들; 링크스(Links-흑인 전문 직장 여성들의 멘토링 모임).

전체 모임에서, 각 그룹이 교재를 읽으면서 발견한 주요 내용들을 보고하게 한다. 또 자원하는 이들에게 간단하게 자기 삶에 있었던 멘토링 이야기들을 나누게 한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계속해서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인도자 자신이 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자료들이나 교재에서 개인적으로 얻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속회

그룹을 다시 모으고 속회로 나눈다음 간략하게 (1 분정도) 다음의 질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게 한다:

-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을 신앙 여정에서 인도해 왔습니까?
- 당신은 누구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왜?

축복기도로 마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친구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호등이 되고 등대불이 되고 손전등이 되고-심지어 바람 속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실한 이들의 절규를 들었고 이제 답합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응답과 묵상 (10분)

전체 그룹으로 다시 모여 요한 웨슬리의 인용문을 다 한목소리로 읽는다. 이것은 참가자 지침서에 있다:

우리들이 우리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만남에 신실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기꺼이 선을 행하고 악을 극복하며 공정하고 친절하며 긍휼하고 온유하며 평화롭고 참을성이 많게 하옵소서. . . 우리가 여기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 나라에서는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¹¹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묵상 일지를 가지고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무엇을 써야 할 지 참가자 지침서를 참조하라고 언급해 준다.

행동여로의 초대 (25 분)

멘토 짝 짓기

참가자들을 세 팀으로 나눈다. 각 팀에서 멘토와 제자의 짝을 짓게한다. 그런 다음 각 팀에서 대표 선수를 내 보내서 짝을 맞추게 한다. 한 짝이 맞을 때까지 (팀 1, 2, 3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 한 팀이 맞추면 그 팀은 또

11. 도널드 드마레이(Donald Demaray) 편집, <요한 웨슬리의 묵상들과 기도문들>(Devotions and Prayers of John Wesle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59), 107쪽.

다른 짝을 찾을 기회를 가진다. (만약 두 번째 짝도 맞추면 다음 팀이 맞출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모든 짝을 다 맞추고 나면 전체 참가자들이 멘토들과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당신의 신앙 여정을 기억하라:

공작용 종이 한 장을 이용해서 참가자들의 신앙 여정을 도표로 그리거나 글로 써 보게 하라. 8 내지 10 번 정도의 중요한 일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입교식,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일, 대학에 간 일,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은 일, 선교에 자원한 일, 자녀를 낳은 일 등. 그리고 신앙 여정 끝에는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다음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쓰거나 그려 보게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영원한 가족들”이라고 쓸 수 있다. 그 말은 법정 양육 제도 하에서 다 자라서 그 집을 나와야 하는데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해 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어른들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가족들을 찾아 주고 싶다는 나의 열망을 표현한다.

만약 시간이 되면 참가자들이 다른 짝을 찾아서 서로 자기들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폐회 예배 (10 분)

찬송:

“나를 보내소서”,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331장; 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다해 사랑해요”,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25장. **(2쪽에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이 곡들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찬송들로 대체할 수 있다)

멘토들을 기리는 교독문

낭독자 (자원하는 분):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바나바, 룻과 나오미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멘토들과 안내자들의 이름을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 봅시다.

다함께 (여러 자원자들이 같이 외침): _____,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낭독자: 이제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름들 (혹은 관심사들)을 소리쳐 외칩시다.

다함께 (여러 자원자들이 같이 외침): _____,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면) _____,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기로 서약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바쁜 일정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벗이여, 내가 여기 있소. 당신을 어떻게 도울까요?”라고 말하기를 서약합니다.

과제

제 4 장을 읽고 중요한 배울 점들과 자기에겐 떠오른 질문들을 적어 보라.

네 번째 모임: 변화시키다

암송할 인용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2-3에 근거함

이 모임의 목표

- 악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 보는 것
-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올바른 일을 하라”는 성경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는 것
- 요한 웨슬리의 열정에 비추어 대변하는 사역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

필요한 자료들

- 흰 종이
- 편지봉투
- 우표
- 펜

준비

우표를 봉투에 다 붙여 놓는다 (참가자 한 명당 봉투 한 장)

수업 계획

개회 예배 (5분)

찬송

“살아계신 주 성령”,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14장; 또는 “나는 비록 약하나”,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329장 **(2쪽에 나오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이 곡들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 때 반드시 포함 시킬 것)** (다른 찬송들로 대체할 수 있다)

성경 (자원하는 분):

이사야 58:1-12

기도 (자원하는 분)

교독문

낭독자(자원하는 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거칠고 쉴틈없는 바다의 풍랑 한 가운데서 불러 주셨습니다. . .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다함께: 나의 사역이 주님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변화하게 하소서.

낭독자: 주여, 당신은 나의 해변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두 손을 열심히 움직여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고를 통해 다른 이들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다함께: 주님을 통한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낭독자: 하나님 우리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의 주역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 장소와 이 시간에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함께: 주님, 저는 제마음을 다하여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주소서

성도의 교제 (10 분)

자 오세요!

참가자들을 8 명 내지 10 명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들을 방 한쪽에 자기 이름에 있는 글자 수대로 줄을 서게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같은 숫자의 이름이 있으면 알파벳 순서로 서게 한다 (한국 이름은 거의 세 글자이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서게 하는 것이 좋겠음-역주)

나는 교회에 갑니다 . . .

그 다음에는 그룹이 그 자리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서게 한다음 기도하게 한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그리고 나는 _____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자기 이름과 자기 앞에 있던 사람 이름을 전부 다 빈 칸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네 번째 사람이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 이름은 철수입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나는 한영, 태영, 표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름을 잊거나 빠뜨리면 그룹에서 소리 질러서 빠진 사람 이름이 누군지를 말해 준다.

본문과 상황 (25 분)

변혁에 대한 이 장을 소개한다. 오늘의 목표를 지적한다: **앞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 시키라는 소명을 받는 것, 성경 시대와 오늘날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따르는 것.** 참가자 지침서에 있는 이 모임의 목표들을 읽어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아이다 웰스-바넷(Ida B. Wells-Barnett)처럼 정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 지 물어 보라. 몇 사람들의 대답을 듣는다.

변혁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지역이 마음에 떠오르는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해본다. 참가자들의 즉석 대답을 유도하라. 가령 지구를 위한 관심이나 인종갈등, 전쟁과 가난, 종교적인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진 나라들... 참가자들에게 이 질문처럼 오늘의 수업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부르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참가자들을 **공부그룹**으로 모이게 해서 4장의 주어진 부분을 재 검토하게 한다. 전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와 닿는 내용 열 가지, 더 알고 싶은 개념 두 가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세 가지를 적게 한다.

전체가 모이면, 각 그룹에게 교재를 읽고 발견한 주요 내용을 나누게 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서의 변혁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그룹들에게 자신들이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모임에 인도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은 물론 교재나 다른 자료에서 배운 것들을 추가하도록 한다.

속회 (20 분)

다시 모여서 속회들로 나눈 다음에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고른 다음 질문들 중의 하나를 대답하게 한다 (일분 정도):

- 당신의 영혼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변혁에 관한 당신의 간증이 있습니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 당신은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다음의 기도를 하고 마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모든 일을 하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매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그리고 잘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응답과 묵상 (15 분)

참가자들에게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들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변화를 이루겠다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일지에 쓰거나 그리도록 격려한다.

행동으로의 초대 (25 분)

공동체에 주시는 소명

참가자들에게 두 세명으로 그룹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변혁의 소망이나 열정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이것들은 교회, 지역사회 혹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수도 있고 공동체가 해야 될 것도 있다. 이 과제를 나눈 후에 참가자들이 다루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비록 함께 있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보도록 격려한다.

몇 분 후에, 각 소그룹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그룹들과 나누도록 한다. 인도자로서 이런 생각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들이 혹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구조를 통해서 있을까 모색한다.

행동 계획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과 우표가 붙은 봉투를 준다. 종이를 반으로 찢으라고 한다. 그 중 한 쪽에는 참가자들이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할 일들을 적게 한다. 그룹이 몇 가지 예를 제안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금식, 수양회, 독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코치와의 만남, 선교지 사역 등이다.

나머지 한 쪽에는 다음 3 달 사이에 참가자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과 도전의 영역들을 적으면서 행동 계획을 만들게 한다. 이것은 그 전의 활동에서 소그룹과 나누었던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자신들이 그 전에 나누었던 대화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적어 넣어야 한다. 각자 하나 이상의 목록을 적을 수도 있다. 매 항목마다 한 가지 행동 계획을 실천할 예정 날짜를 적어 넣게 한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적은 봉투를 준비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계획을 봉투에 넣고 봉한 후 모임 인도자에게 제출하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3 달 후에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만약 원한다면 이메일로 참가자들이 쓴 것에 대해서 인도자와의 대화에 초청할 수 있다.

폐회 예배 (15 분)

찬송

“항상 진실케”,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78; 또는 “소명,” <연합감리교회 복음 성가집> 2130 장

(2쪽에 나와 있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이 노래들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찬송들로 대체할 수 있다)

기도 (한목소리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나 같이 기도하기를, 그리고 드보라같이 인도하기를, 빌립같이 지도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같이 세상을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과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뿌리 내리게 한 그 말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이 매일 매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낭독자 (자원하는 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와서 따르겠습니까?

다함께: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자: 당신은 정기적으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만들겠습니까?

다함께: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자: 당신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다함께: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자: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잘 알건 혹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건 지혜롭게 지도하겠습니까?

다함께: 주님이 나의 도움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자: 당신은 불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변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다함께: 주님이 나의 도움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자: 오 주님, 성경 시대와 같이 주님은 해변으로-이 선교학교에-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헌신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함께: 주님, 저는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꺼이-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합니다만, 주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오니 저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여시고 나를 깨우치시옵소서, 하늘의 영이시여. 아멘. 아멘.¹²

원형 기도:

사람들에게 원을 만들라고 한다 (아니면 두 개의 원을 만들어서 한 원은 안쪽에 있게 한다). 자원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한다. 공동체를 위한 감사의 기도, 교재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가능성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예배의 마지막 부분으로 찬양을 하도록 한다.

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62장. **(2쪽에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가 이 노래의 가사나 곡을 사용할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찬송들로 대체할 수 있다)

축도.

12. 설교 준비를 위한 기도는 알린 월러 박사님(Rev. Dr. Alyn Waller)이 사용하시던 것인데, 박사님은 펜실바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에논 침례 교회(Enon Baptist Church) 담임 목사로 1988년 부터 섬기고 계신다. 허락을 받아 사용함.

부록

부록 A: 비밀 준수와 행동에 관한 규정과
거룩한 회의를 위한 행동 지침들

부록 B: 속회 인도법

부록 C: 기도하는 사람들

부록D: 멘토 짝짓기 게임 준비
바른 길을 걷기 게임 준비

부록 A

비밀 준수와 행동에 관한 규정¹³

(이것은 견본이다; 각 모임은 인도자와 함께 각자의 것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귀중하다.

모든 사람은 말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과 관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모임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누구의 이야기도 본인의 허락없이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감이 필요할 땐 공감하고 돌봄이 필요할 땐 돌봐준다.

듣고 말하고, 듣고 기도한다.

13. 비밀준수와 행동에 관한 규정은 <가난> 인도자 지침서 © 2012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인용한 것임. 모든 저작권은 여성교회에 있고 허락을 받아 사용함.

거룩한 회의를 위한 제안들¹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언제나 남을 존중하며 발언한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다른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그 토론 과정을 통해 한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둔다.

머리 속에 대답을 궁리 하기 전에 먼저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를 가지게 된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다른 의견들에 대해 개인적인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할 때는 그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것은 특별히 그 입장에 반대할 때 중요하다.

감정을 돋구는 말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이나 흥분하거나 화난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들이나 집단들에 대해서 일반화를 피한다. 자기의 요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가지고 제시한다.

중재자나 대화 촉진자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라—우리가 발견한, 혹은 발견했다고 생각 하는 그들의 견해나 행동에 있어서의 단점들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

부록 B

속회 인도법

축하합니다! 당신은 속회 인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속회원들이 수천년 동안 물어온 질문: 당신의 영혼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 당신은 인도자로서 그 토론을 이끄는 기쁨과 책임이 있다.

만약 선교학교에서 가르친다면 모든 속회원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 일을 도울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속회원이 가진 특별한 재능과 관심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할 수 있는

14. “연합감리교인들은 총회에서 전체 기조의 변화를 추구한다.” 2007년 8월 3일자,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http://umc.org/site/c.lwL4KnNlRrH/b.3082929/apps/nl/content3.asp?content_id={2B1F5695-20AD-47C1-BAC7-18E6878B6063}¬oc=1#.UpAVVuI_SRM.

대로 각 속회원의 이름을 외우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그 이외에도 언제나 지나칠 때 꼭 그들에게 인사하도록 하라. 선교학교에서 내내 속회의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속회 인도자로서 제안된 질문들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다른 질문들을 사용해서 토론을 주도한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 인도자가 “초대”를 해야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속회원들에게 비밀 준수 규정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거룩한 회의를 위한 제안들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속회 인도자로서 친구들과 동료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로 임명된 특별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일은 명예요 특권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부록 C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청원과 그 기도를 한 사람의 이름을 짝지어보라—2분 동안.)

- | | |
|------------------|---------------------------------|
| 1. 다니엘 | A.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 |
| 2. 히스기야 | B. 머느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기도 |
| 3. 수로보니게 여인 | C. 느부갓네살의 진노에서 구원받기를 기도 |
| 4. 예수님 | D. 다윗과 그 수하들에게서 구원받기를 기도 |
| 5. 바울과 실라 | E.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 |
| 6. 십자가 상의 강도 | F.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 |
| 7. 모세 | G. 치유를 기도; 15년 생명 연장을 받음 |
| 8. 엘리야 | H. 자기의 딸이 고침 받기를 기도 |
| 9.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 I. 함께 있는 이들이 진리로 거룩해 지기를 기도 |
| 10. 마리아 | J. 슬로보한의 딸들에게 상속권을 허락할 것을 기도 |
| 11. 아베스 | K. 예수님께 낙원에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 |
| 12. 한나 | L.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 |
| 13. 아비가일 | M.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 |
| 14. 안나 | N.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 3년반 가뭄이 들 |
| 15. 나오미 | O.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임 |

기도하는 사람들 짝 짓기 활동의 해답







1. 다니엘 [F] (다니엘 2:18)
2. 히스기야 [G] (열왕기하 20:1-6)
3. 수로보니게 여인 [H] (마가복음 7:26)
4. 예수님 [I] (요한복음 17:17)
5. 바울과 실라 [O] (사도행전 16:25)
6. 십자가 상의 강도 [K] (누가복음 23:42)
7. 모세 [J] (민수기 27:5)
8. 엘리야 [N] (야고보 5:17)
9.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C] (다니엘 3:17)
10. 마리아 [L] (사도행전 12:12)
11. 야베스 [A] (역대상 4:10)
12. 한나 [M] (사무엘상 1:11)
13. 아비가일 [D] (삼상 25:28)
14. 안나 [E](누가복음2:36-37)
15. 나오미 [B] (룻 1:9)

부록 D

멘토 짝짓기 게임 준비

페인터들이 쓰는 청색 테이프를 사용해서 24개의 사각형을 만든다. 각 사각형은 만드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두개의 4X6 인덱스 카드나 공작용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정도로 커야 한다. 글씨를 써서 아래로 향하게 한 후에 사각형 안에 종이 혹은 카드를 붙인다. 그 종이나 카드의 바깥쪽에는 밑에다 페인터들이 쓰는 테이프 혹은 마스킹 테이프 한 통을 놓는다.

게임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짝이 맞다고 생각하는 두 단어들을 뒤집게 한다. 짝이 맞으면 그 단어들은 보이게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이들은 다시 보이지 않게 놓고 다음 사람들이 맞추도록 한다. 짝이 맞으면 게임을 한 사람은 (자기 팀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혹은 개념)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바른 길로 걷기 활동 준비

[주의: 다음 단어들은 아무데나 놓으면 된다: 안에, 함께, -에, 그, 같은, 시간, 위한, 우리, 잘, 또]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
기도하라!	또한	있으라
기도에	위하여	
	하고	
우리를	를	계속

참고문헌

- Almarode, John. "Six 'Energizers' to Increase Student Focus and Retention."
<http://developmentalresources.wordpress.com/2013/04/15/almarode-six-energizers-to-increase-student-focus-and-retention/>.
- Bloom, Linda. "Class meetings, a part of Methodist history, have relevance today."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2004, <http://archives.umc.org/interior.asp?ptid=2&mid=5937>.
- Brookfield, Stephen D. *The Skillful Teacher*.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0.
- Davis, Katie J. (Beth Clark, contributor). *Kisses from Katie: A Story of Relentless Love and Redemption*.
New York: Howard Books, 2011.
- Gilbert, Elizabeth. *Eat, Pray, Love*. New York: Viking Press, 2006.
- Kim, Sin Ho. "The Comparative Study—The Class Meeting of John Wesley and the Home Cell Group of Yonggi Cho." Presented at the 43rd Annual Meeting of the Wesleyan Theological Society.
www.wesley.nnu.edu/fileadmin/imported_site/wts/.../wtsfinalsinhokim.doc.
- Louter, Becky Dodson and Pat Hoerth. Participant's Guide to *The Call: Living Sacramentally, Walking Justly*.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3.
- Stay on Track Activity. Adapted from *WhyTry* by Christian Moore. See www.whytry.org. Strayed, Cheryl. Wild. New York: Alfred A. Knopf Press, 2012.
- The Faith We S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0, 2004.
-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N: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9. "United Methodists seek change in tone at assembly," August 3, 2007,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http://umc.org/site/c.lwL4KnNlRH/b.3082929/apps/nl/content3.asp?content_id={2B1F5695-20AD-47C1-BAC7-18E6878B6063}¬oc=1#.UpAVVuI_SRM.
- Waller, Alyn. Sermon preparatory prayer. 1988.
- Wilson, Faye. Leader's Guide on Poverty. United Methodist Women, 2013.

저자 소개

파이에 윌슨(Faye Wilson)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 학교에 자주 글을 쓰는 분이다. 그녀는 총회세계선교부에서 21년간 선교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런 역할 때문에 전국 교회 협의회 교육 담당 프로그램 위원회에 서 섬겼고 해외에서 초교파적으로 선교 교육 자료를 만드는 일을 도왔다. 그녀는 연회와 지방회의 세계 선교 담당 총무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였고 글로벌 프레이즈(Global Praise) 워크숍을 인도하였고 2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을 방문하여 선교 사역을 하였다. 그녀는 1982년 8월에 처음으로 선교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녀는 여러 선교 학교 교재를 집필했는데 그 중에는 <큐바>, <멕시코>, <폭력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다리 밑에 있는 소녀>(어린이용 교재)와 <출애굽기>(Exodus)(중고등부 교재)가 있고 (어른용으로) <월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Vietnam, Cambodia, and Laos); <일용할 양식과 믿음>(Food and Faith) 그리고 <가난>(Poverty)의 인도자용 지침서를 썼다. 그녀는 동시에 <가난> 학습용 <디비디>(DVD)도 만들었다.

파이에(Faye)는 위코미코 카운티 공립 학교(Wicomico County Public Schools)에서 부모/공동체 전문가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교회인 시온산 감리교회(Mt. Zion UMC, Quantico, MD)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성인 주일학교 교사이자 음악 목사(세 개의 찬양대 지휘)로 동시에 시온의 열정 찬양댄스단(Zeal of Zion Praise Dance) 단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녀는 뉴욕 대학에서 언론방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드류 신학교에서는 신학 석사,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성인 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Ed.D)를 받았다.